

이번 분분 ... ‘함께 가는’ 명칭 고민해야

명칭이 나오기 까지

2005년

9월

서울캠퍼스 명칭변경을 위한 통합실무위원회와 이후 추진위원회구성



공학캠퍼스'로 확정
총학생회를 비롯한
시작

2006년

6월 1일

첫 번째 '캠퍼스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 시작 공모전 개최, '서울-인문사회 의학캠퍼스, 국제-국제공학캠퍼스'로 의 캠퍼스 명칭 결정 하지만 서울캠퍼스의 캠퍼스 명칭변경 유보 '인문사회 의학캠퍼스'란 명칭 반대

2006년

10월 12일

추진위원회 회의 열림 수원 캠퍼스는 국제공학캠퍼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양 캠퍼스 모두 학문적 명칭으로 변경 합의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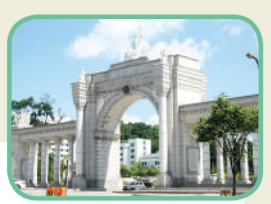
3월 14일

기획조정실에서 '국제공학캠퍼스'를 '국제캠퍼스'로 변경 추진

2015년

11일

현재 '국제캠퍼스' 캠퍼스 명칭 유지



라는 가까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의견차를 보이며 단절됐던 양 캠퍼스는 수원캠 총학측의 강력 대응으로 인해 21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양 캠퍼스 총학은 양 캠퍼스의 공동 명칭변경에는 합의했지만, 서울캠 총학 측은 상징적 명칭을, 수원캠 총학 측은 학문적 명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캠 총학은 “수원캠 총학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 개만 선택해 그냥 받아드리라 말했다”며 수원캠 총학에서 절차의 원칙을 깬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캠 총학은 “이는 원칙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서울캠이 대학주보 인터뷰를 통해 몇차례 ‘캠퍼스 간 논의’는 했지만 명칭변경은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강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캠퍼스는 낯선 논의를 주고 받다가 이내 ‘서울-수원 합동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통합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양캠 총학 공동명칭 변경 합의 했으나 실질적 실행은 실패

‘합동 중앙위’ 확정 이후에도 수원캠 총학 측은 명칭 변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28일에는 수원캠 총학이 캠퍼스 명칭변경과 관련해 김병묵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조원경 부총장의 서면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총장 비서실과 기획조정실을 점거했다. 수원캠 총학은 이날 김 총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서명이 담긴 탁구공 6천 여개로 퍼포먼스를 보인 뒤 김 총장과 다시 면담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날까지 총장 비서실을 점거했다. 수원캠 총학 박정민(토목건축공학 1998) 회장은 “캠퍼스 명칭변경은 이제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총장 명의의 답변이 대학 본부의 입장이라 보고 있으며, 서울캠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서울캠 총학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윽고 10월 12일 서울캠 본관 대회의실에서 추진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수원캠이 주장하던 ‘학문적 명칭’으로의 변경’이 합의됐다. 서울캠 총학은 “‘인문사회의학캠퍼스’라는 명칭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소외 학문에 대한 장학금 확충 등의 보상이 있다면 학문적 명칭으로의 변경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

의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은 전원 수원캠이 ‘국제공학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동의’는 결국 무의미한 절차가 됐다. 양 캠퍼스 학부 총학간의 합의는 도출됐으나, 다음 단계인 구성원별 동의절차의 진행이 서울캠 구성원들과 명칭 속에 포함되지 못한 수원캠 일부 구성원들의 반대로 중단된 것이다.

이후 2007년에 캠퍼스 명칭변경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는다. 3월 14일 수원캠 기획조정실 측이 합의된 ‘국제공학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의 명칭변경 추진을 밝혔다. 수원캠 기획조정실 측은 “이제 지지부진한 캠퍼스 명칭변경을 마무리할 시기”라며 명칭변경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수원캠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영주 직원은 “‘국제공학캠퍼스’란 학문적 명칭은 소외학문이 발생한다”며 “그 대안인 캠퍼스 특성화 명칭으로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달리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 합의 이후에도 명칭에 포함되지 못한 예체능 계열의 반발은 지속됐다.

하지만 절차 중단의 이면에는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서울캠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 27일 당시 수원캠 총학생회 하대현(테크노공학 2000) 회장은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든 지방 캠퍼스 명칭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2006년에 서울캠 총학이 동의한 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행동이었으며, 애초에 서울캠 구성원의 대다수는 캠퍼스 명칭변경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6년도 당시 하 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명칭 변경 논의의 중심에서 있었다. 이어 하 회장은 “만약 서울캠과 함께 명칭을 바꾸려 했으면 지금까지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최초 서울캠 측의 대표적 이유는 ‘학문 단위의 소외’로 알려졌다. 사실은 양 캠퍼스 사이 ‘문제의식의 공감’이 선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재학생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는 명칭 변경 논란에 대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건드려나’, ‘우리가 왜 ‘서울’이란 명칭을 포기해 줘야 하느냐’ 등 부정적 의견의 글이 대다수를 이뤘다.

결국 연이은 절차상 중단에 한계를 느

린 대학본부와 수원캠 총학 측에서 목표를 ‘지방 캠퍼스 명칭 변경’으로 변경하면서 ‘국제’라는 애매모호한 학문단위의 총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캠 측의 반발로 국제캠퍼스의 ‘단독 명칭변경’을 진행하게 되면서 양 캠퍼스는 명칭 변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원화의 구성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칭이 변경된지 8년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의 불씨 ‘여전’

한편, 학내 커뮤니티의 일부에선 이 같은 ‘캠퍼스 명칭’에 관한 논란의 불씨를 일찌감치 잠재우고 있다. 우리학교 자치교지인 ‘고환’에서는 이같은 캠퍼스 명칭을 ‘회기 캠퍼스’, ‘서천캠퍼스’라고 명명한다. 교내 재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Khuplaza’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양 캠퍼스를 표기한다. 교내 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신상진(컴퓨터공학 2011) 군은 “현재 사용하는 명칭보다 훨씬 친근감이 든다”며 “서울이나 국제 같은 명칭보다 훨씬 한 학교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학문 단위의 명칭 변경’ 의견 또한 상당하다. 우리 신문이 진행했던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8년 주관식 문항 ‘본·분교 이미지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목 399건 답변 중 50여 건이 순수히 ‘명칭’만을 문제라고 답했으며, 그중 올바른 해결책으로는 ‘성균관대 식’ 명칭 표기를 해야한다는 답이 약 70%를 이뤘다. ‘성균관대식’ 명칭 표기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와 같이 각 캠퍼스 별로 가장 다수의 소속 학문을 포괄할 수 있는 ‘계열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역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머지 30%의 답변 역시 개개의 내용은 다르나, ‘이름 만으로 이원화의 기준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렇듯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 캠퍼스가 대외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 명칭변경’은 필수적이라는 공통점 또한 존재해 향후 명칭 관련 논의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의 지표로 작용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2016-1학기 우정장학을 수혜받으려면 “2016-1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2015. 11. 24(화) ~ 12. 16(수)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 2015. 12. 1(화) ~ 12. 3(목)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5. 12. 1(화) ~ 12. 3(목)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1. 기존 교내입시/보통/경회가족/고시 등·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3. 가계곤란 증명서류 제출 생략 ※ 단, 우정장학 수혜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4. 장학신청시 소속 단과대학에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신청방법 1. 2016-1학기 우정장학, 우수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등의 장학 신청을 “201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통합함.
2. 장학금신청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3. 가계곤란 증명서류 제출 생략 ※ 단, 우정장학 수혜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4. 장학신청시 소속 단과대학에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제출장소 (해당자에 한함) 구 분 해당자 및 제출서류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합격자(신규): 고시 합격증명서 1부
장애허생지원센터 - 장애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처장학팀 - 보훈장학(신규):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부
- 경회가족장학(신규):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기존 계속장학생입시,보통,경회가족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기간에 신속히 복학처리요망

지급 제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장학금 -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지급방법 - 등록방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등록일자 ※ 고지서 납입액이 “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절차(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참고사항 1. 우정장학금은 장학팀에서 지급함.
2. 장학금 선발기준(우수모범,밝은사회단체)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3.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을 수혜할 수 없음 (단,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4. 계속장학생이 2016-1학기에 휴학할 경우, 계속장학 의의 타당성취가 없을 경우에는 2016-1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요령(이동필유함).
5.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6-1학기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2015-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5. 12. 1(화) ~ 12. 18(금) [3주간]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타장학수혜자에게도 장학 지급이 가능하며, 등록금 초과 장학지급 가능)
- 장학금: 20만원~100만원

● 모자이크 장학이란? “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분야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역량	국제단위 3위 이상	500,000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2015.3.1 ~ 2015.11.30
	전국단위 3위 이상	300,000	
	시도단위 3위 이상	150,000	
	교내 경연대회 최우수상	100,000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SOC급 학술지	400,000	
사회봉사역량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 상기 기간 중 취득한 증명서 및 활동내역서 인정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50,000	
	한일학자점	10,000	
	토익 900점 이상 / 토를(T) 110점 이상	200,000	
	토익 800점 이상 / 토를(T) 100점 이상	100,000	
	JLPT N2급 JPT 75 이상	200,000	
	JLPT N2급 JPT 540 이상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DELFC C1 - C2	200,000	
국제화역량	DELFB B2	100,000	* 외국어/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에 응시 및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TORFL-2	200,000	
	TORFL-1	100,000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DELE Diploma Superior(고급)	200,000	
	FLEX 듣기/읽기 90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DELE Diploma Intermedie(중급)		
	FLEX 듣기/읽기 776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한국어문화 1급	200,000	
	한국어문화 2급	100,000	

※ 기타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지대대, 장학팀) 및 단과대학 게시판, 개인 이메일 참조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장학/용자신청) 「2015-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개인역량(조회) 신청 버튼 클릭, 원료(학생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대체) (* 학생들은 평소에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개인역량관리) 개인역량입력(증빙서류 단과대학 제출)을 하며, 단과대학의 승인 처리를 받아 놓아야 함)

● 관련문의: janghak@khu.ac.kr / http://janghak.khu.ac.kr, 961-0045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맞춤형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안내

● ‘취업성공패키지’란?
1)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취업지원 상담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파악 후 진로 및 취업목표설정 등을 통해 취업까지(최장 1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직무 분석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단계 별 참여 수당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미취업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철저 신청하여 취업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진행단계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기간
1단계: 기초상담 - 목표수립,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참여수당(15만원)지급 1주~3주
2단계: 직업훈련 (선택사항) - 최소 2회이상 구직활동 후 훈련참가 가능 6개월 (훈련기간)
- 일반직종과정 훈련 *훈련비(200만원)(자비분담10%~30%) + 훈련수당 최대 월28만 4천원
- 국가기간직력산업직종 훈련 *훈련비 전액 + 훈련수당 최대 월41만 원 6천원 훈련과정검색 www.hrd.go.kr 참조
3단계: 집중취업상담 - 취업정보제공, 집중취업알선, 면접클리닉 3개월~6개월
※세부사항은http://www.work.go.kr/pkg/index.do 참조

● 참여 대상자: 미취업 졸업생 및 4학년 재학생
※ 참여제한: 실업급여 수급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emhong48@unies.com)로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참가신청서			
이름	학번	학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인)

※세부 문의사항(유니에스중부센터): Tel. 02-6011-1335~1337 Email. gemhong48@unies.com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 위치: 청운관 1층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